

추석 연휴, 재계 총수 어떻게 지나나

해외서 국내서 현장 방문... 재충전하며 경영 구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계열사 '컨틴전시 플랜' 지시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참가

다사다난했던 재계, 추석 연휴를 맞은 총수들 행보에도 관심이 높다. 서로 다른 일정 속에서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을 풀 묘안을 짜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 총수는 올해 추석 연휴에도 경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거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행보와 같이 현장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설에도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지난달에는 4차례에 걸쳐 현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해 현장 경영에 박차를 가했다.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업무는 산적해있다. 당장 일본 수출 규제 후 삼성전자 계열사에 '컨틴전시 플랜'을 지시한 상황이다. 일부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도입한 데 이은 또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삼성전자 경영 체제도 재정비해야 한다. 최근 '삼바' 수사로 주요 경영진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데다,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관련 최종심 파기 환송으로 컨트론타워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도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참가해 22일까지 현장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LA 오토쇼 이후 첫 모터쇼 방문이다.

정부회장은 올해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등 신 모델을 출시하면서 위기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총괄부회장이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발표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오토쇼' 행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 빠진 현대차를 높에서 구해내는 공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에 대응할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 수석 부회장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미국 무역확장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우려에도 대응해야 한다.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는 연휴 기간 따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현안을 쌓아놓고 있어 편히 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총수는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소송전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인력 빼돌리기'에 대한 불만이 특히 분쟁으로 번지면서 소모전으로 번진다는 지적에 총수들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빚발친다.

일단 연휴 기간에도 최 회장과 구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 총수 책임론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연휴가 끝나면 두 총수가 해결 실마리를 만들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를 위해 두 회사의 실무진들이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T, 초고화질 영상통화 '콜라 2.0' 선보

HD보다 최대 4배 선명한 QHD 구현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에서 초고화질(QHD)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콜라 2.0'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콜라'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통화 플랫폼 T전화의 영상통화 서비스다. 지난해 4월 출시돼 누적 통화량 1억5000만통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T전화 콜라 출시 이후 매월 150만명 이상이 꾸준히 이용중이며, 스티커도 이용 건수가 매월 7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에 맞춰 콜라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HD 화질보다 최대 4배 선명한 초고화질(QHD HD) 영상통화를 구현했다.

또 3G와 LTE 영상통화도 FHD(풀HD)급으로 선명도를 높였다. 기존에



모델이 '콜라 2.0'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영상통화는 HD 화질이 일반적이었다.

콜라2.0에서는 화질을 선택해 영상통화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5G의 경우 초고화질과 고화질, 데이터 절약모드 3단계 중 본인의 데이터 이용 환경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U+-을지대 병원, MOU 체결

병문안도 가상으로 '5G 스마트병원'

5G 기반 의로서비스 구축·운영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의료 영역 확대가 본격화된다.

LG유플러스는 10일 을지재단과 함께 '5G 스마트병원'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간 설계 단계에서부터 5G 환경으로 조성되는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마련해나가는 데 합의했다.

협력 범위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을지대병원 5G 기반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환자 중심 정밀 의로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인프라 제공 ▲의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IoT, 위치기반 솔루션 제공 ▲환자, 보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AR, VR활용 5G 특화서비스 공동개발 ▲AI-EMC 구축에 필요한 의료특화 솔루션 및 단말 인프라 제공이다. 상세 사항은 양사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5G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의료 활동 및 프로세스 전반의 고 효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I 음성녹취를 통한 의료기록 정보화,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VR 간호 실습, IoT 기반의 위험약품 위치 및 이동경로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나인기자

SK-한국교직원공제회, 공동투자 파트너십

민간기업과 첫 펀드 조성... 10억달러 투자

SK가 투자하면 공제회 추가로 투자 "글로벌 투자 협상력 한층 더 높일 것"

SK(주)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투자를 약속했다.

SK(주)는 10일 여의도 교직원공제회관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공동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주)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를 함께 투자하며 투자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산이 37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공제회다. 민간기업과 공동투자를 위해 펀드를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펀드는 SK(주) 투자처 발굴 및 밸류업을 거쳐 5억 달러를 투자하면, 교직원공제회가 추가로 5조원을 투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양측은 10월말까지 펀드 설립 및 약



SK(주) 장동현 사장(오른쪽)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차성수 이사장이 공동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

정서 체결을 마무리하고 공동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투자기간은 4년, 만기는 8년이다. 상호 협의를 거쳐 만기를 더 늘릴 수 있다.

앞서 SK(주)는 미래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혁신기술과 글로벌 고성장 영역에 투자하는 등 성과로 투자 능력을

검증받아왔다.

SK(주) 관계자는 "이번 공동투자 약정을 통해 우량 투자처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데다 최적의 타이밍에 투자가 가능해져 글로벌 투자 협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위성으로 센티미터까지 파악... KT, 정밀측위 기술 개발

세계 최초 라이더기반 '비전GPS'

KT는 세계 최초로 라이더기반 정밀측위 기술인 '비전GPS'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전GPS는 라이더 센서와 고정밀GPS를 결합해 어디서나 정확한 위치를 측위하는 기술이다. 고정밀GPS의 경우 개활지에서는 수십 센티미터의 위치 정확도를 가지나 건물이 많은 도심지에서는 그 성능이 수 미터로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비전GPS는 GPS의 성능이 저하되는 도심지에서도 라이더 센서를 활용해 수십 센티미터까지 위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차량 이동시 라이더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의 변화를 인식해

이동거리와 위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도심지역의 3D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 또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식과는 달리 날씨나 조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측위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는 지난 6월 강남대로에서 비전GPS의 정확도 검증을 진행했다.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자체 제작한 정밀지도에서 비전GPS기반 측위와 GPS기반 측위 성능을 비교 검증했다. GPS는 도심에서 그 성능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비전GPS는 전 구간에서 차선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비전GPS를 5G-V2X(차량사물간양방향통신) 단말에 탑재해 '시스템 기술' 시나리오를 실증했다. 이 기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융합기술원 외부에서 직원들이 비전GPS를 시연하고 있다. /KT

은 전방 차량 영상을 후방 차량에 전달해 후방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준다. 비전GPS를 이용할 경우 두 대의 차량이 정확히 동일 차선에서 주행할 때에만 앞차의 전방 영상을 뒤차에 전달, 수 많은 차량 중 앞뒤 차량 간 시스템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 /김나인기자